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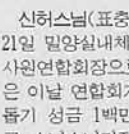
교차로

원각사 법당 개원



침형스님(원각사 주지)은 탑골공원 원각사지 10층석탑의 복원 운동의 실질적인 전개를 위해 원각사법당경원각사 복원추진위 본부를 열었다. 16일 오후 2시에 문을 여는 원각사법당의 위치는 탑골공원 뒷편 중앙빌딩 6층. (02)765-1379

밀양 사원연 회장 취임



신희스님(표충사 주지)은 지난달 21일 밀양실내체육관에서 밀양불교사원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이날 연합회가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시에 기탁하고 소년소녀가장 34가구와 자립원에 성금을 전달했다.

백제미술 주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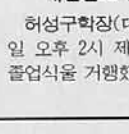
서돈각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무녕왕릉 출토품을 중심으로한 백제미술」이란 주제로 제47회 다보문화강좌를 열었다.

불교도유기구 후원의 밤



김재일(한국불교기아도유기구)회장은 22일 오후 6시 서울 중구청 구민회관에서 불교도유기구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김병조, 김홍국, 정미화씨 등 불자연예인들이 대거출연하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르완다 난민 돕기 위한 자금품 '자비의 종' 제작 비로 사용된다. (02)722-0108

대원불교대 졸업식 거행



허성구학장(대원불교대학)은 11일 오후 2시 제27기 통신 및 출강 졸업식을 거행했다.



제4대 천리안 동호회장 박성진 씨

“컴퓨터는 더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컴퓨터

‘대중화 원년’ 선포... 설법방등 신설

불교동화회는 젊은이 이외의 불자 참여폭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여일간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제4대 천리안불교동화회장으로 선출된 박성진(44, 법명 자

광)씨는 금년을 ‘컴퓨터동화회 대중화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임기 1년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박 회장은 우선적으로 1천5백여명의 회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운영위원 6명을 위촉, 각 화일방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설법방’을 신설해 스님들의 참여폭을 확대시키며 상담실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불교가 딱딱하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박 회장은 “컴퓨터에서 느낄 수 없는 불교적 정서는 정기법회와 사찰순례를 통해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3년전, 늦은 나이에 컴퓨터통신과 인연을 맺은 박 회장은 매일 2시간이상을 동화회에서 활동, 회원들로부터 ‘사회적연륜과 경험, 불교

교원력’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회장으로 추대된것.

중·고등학교때부터 불교학생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박 회장은 선물을 장식품회사인 거림아트를 운영하고 있다.



허חק장은 이날 71명의 졸업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외부인사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백영식법사는 오는 20일 대전 계룡대 호국사에서 취임법회를 갖고 제17대 공군 군종장에 취임한다.



자료 수집위에 네팔방문 이근후교수(이대부속병원 신경정신과)는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지



난 2일부터 16일까지 보물간의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



인도 스케치 여행 출국 이수경교수(전 주대미문화과)가 지난 12일 인도로 스케치 여행을 떠났다. 하고수는 “인도 여행은 작품활동에



신비한 힘을 준다”며 이번 여행에서 인도인의 생활상을 객관감없이 실상 그대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승가학원 이사장에

송철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9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법회에서 학교법인 중앙승가학원 제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주한 인도 대사 절건

서경보스님(원봉선교종정)은 3일 법왕정 대법당에서 신임 사장 주한 인도 대사 절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일본 지진피해 복구 성금

전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지난달 27일 일본 천태종 총본산 하에이산 엔라쿠지에 우편으로 지진 피해 자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진피해 복구성금 1천만원을 한국일보에 기탁했다.

미얀마와 문화 교류

김대호스님(대한법회총 총무원장)은 오는 16일 금호동 팔공사에서 미얀마대사(우 폰 민트)와 우친을 함께하고 양국간의 상호우의와 문화적 교류

를 다진다.

청평사 주지 취임 침형스님(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은 지난 달 23일 조계종 제3교구 말사 춘천 청평사 주지로 취임했다.

안양교도소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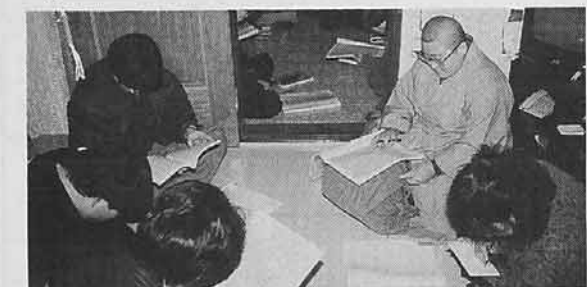
현성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은 지난 달 31일 설날을 맞아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떡국 공양하고 선망 부모 합동제사를 지냈다.

‘우리는 선우’ 법회서 강연

도법스님(선우도량 대표선우)은 지난 4일 ‘우리는 선우’ 법회에서 ‘나는 내삶의 주인공인가’란 주제의 강연을 했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불자들의 모든 삶은 깨달음으로 회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베지진 동포돕기 자선전

심중스님(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자비사 주지)은 일본 고베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교민돕기 자선전담회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출국했다.



◇ 불경서당 강의 장면. 월운스님을 중심으로 20여명의 학인들이 머리를 맞고 공부하고 있다.

동남으로 들던 연세대 신구학교수(당시 대학원생)와 2-3명의 학생들이 여름이면 뒷 밭에 모여 그들끼리 공부하다가 스님께 모르는 부분을 물으며 시작된 불경서당 모

밤 방 불경서당

스님·대학원생·직장인등 함께 경전 공부 10년간 동문50명 배출... 월운스님이 지도

임은 그간 「진계 능엄경찬주」 「현수 대승기신론소」 「원효 초발심자경문」 「아미타경」 「보조어록」 「식가여래행적승」 「원각경 규봉소」 등 13여권의 불전을 강독해 왔다. 한편 불전은 특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독할 수 없고, 더구나 재가의 몸으로 이런 공부 기회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깊이 있는 불교 이해를 위해서는 한문 불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사실은 모든 학인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아닐 수 없다. “불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고인(古人)들이 써 놓은 책을 보니까, 그분들도 낯이 낯이 머릿고 공지만 때때로 몸뚱이 없는 돼지를 만들어 놓았거든. 새 방향이 없고 묵은 방향이다. 원어 자

을 향해 삼배를 할 정도로 엄격하지만, 막상 강의가 진행되면 다정 다정한 합어버지 훈장님이 되는 스님은 불경서당 자체의 모임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학인들끼리의 복습과 예습을 겸한 논쟁이 끝나면 정식 강의가 시작되는데, 강의는 언제나 스님의 제비뽑기로 시작된다. 번호가 당첨된 학인이 배운 부분을 먼저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중간중간에 막히면 스님은 우스개소리를 곁들이며 알기쉽게 설명한다. 중간

중간 터져나오는 웃음은 배움을 즐기는 사제지간의 열화미소(笑花微笑)다. 지난 10여년간 5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불경서당은 4명의 대학교수를 배출하는 등 불교학의 간성을 배출하는 요람이 되고있다. (0346) 68-1954 (김재경 기자)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광릉내에 있는 불선사 동법당 앞에 서면, 땃줄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여러 열매의 신들이 눈길을 끌고 은은한 독경소리가 귀를 유혹한다. 해인스님을 비롯한 스님 4명과 대학원생·직장인 등 모두 20여명의 남녀 학인들이 강백(講白)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앉아 「청량 화엄경소」를 공부하는 정경은 마치 옛날 한

문사당의 풍취를 느끼게끔 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반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이 모임은 불교학·사학·국문학·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강사, 직장인, 학인 스님 등 20여명 인파의 연구생들이 월운스님을 모시고 서당식으로 불전을 공부하는 불경서당(佛經書堂)이다. 지난 83년 초봄, 불선사에 다니면서 월운스님의 독경과 강의를 귀



방송포교 영역넓히는 ‘행동파’

‘세계불교문화전’ ‘섬불교...’ 등 대작추진

신년벽두부터 중흥무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구수한 경상도 말씨 김정학씨(불교방송 제작부 차장).

그는 이미 「세계불교문화전」 「섬불교 포교방송」 「개화승 이동인과 나라세우기」 등 올해의 10대 기획안을 완성해 놓고 95년 한국불교의 등대역할을 할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올해의 사업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성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의 가슴에 개척의 등불을 켜주고 싶은 바람입니다”라며 불교의 자비와 열린세상을 위한 노력에 굳은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불교방송의 개국멤버이기도 한 그는 93년, 역사다큐멘터리 ‘일연스님과 대장경의 비밀’로 제2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이미 PD로서 제작능력과 기획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구도의 길’ 등 영상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 차세대 불교문화화를 위한 산과 역으로도 한몫을 톡톡히 해 왔다.

김정학PD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영역과 소위된 부문에 대한 교량역할, 등불역할을 자처하고 계속해 나갈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10대 기획안 중 방송포교의 획기적인 면모로 부각될 「섬불교 포교방송」은 불교부산·광주방송 개국으로 말미암은 전국방

송원년에 그동안 의면당한 섬지역 불교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조선시대 초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불교가 탄압되고, 승려가 천시되던 때에 개화파 앞방귀족의 정신적사표로서, 개화 선주주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개화승 이동인의 업적을 기리는 「개화승 이동인과 나라세우기」도 광복50년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다.

김PD는 “우리는 한국불교사에서 많은 것을 새로이 인식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자 스스로가 차세대의 주인공으로 한 발 먼저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라며 개척적인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 일연스님과 남해본사도감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싸인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있는 그는 역사적 사실들을 유해한 투명하게 하나하나 짚어갈 계획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구성과 실무의 진행으로 24시간을 분주하게 뛰고 있다. “그동안의 작업이 주위의 도움과 격려로 가능했듯이 올해도 방송국 선배 그리고 고계 여러분과 힘을 합쳐 불교의 내일을 여는데 전력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추진중인 일들을 드러내기 속스러워 하는 김PD는 불교방송 개국5주년 기념으로 3월에 선보일 또 하나의 대작불사 ‘세계불교문화전’을 준비하리라 여념이 없다. (도필선 기자)

게시판

▲가산학술상 공모=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가산학술상(전문연구위원) 공모와 함께 상임연구원을 모집한다. 가산학술상 공모는 불교학 박사과정수료이상 학력에 4월 15일까지, 상임연구원 모집은 불교학 박사과정 이상 학력에 2월 28일까지 원서마감. (02)765-9602

▲전국지부 모집=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95년도 케이텔라비전 원년을 맞아 방송호법과 시청자의 자비화대를 위해 전국지부를 모집한다. (02)712-5812-3

▲2월의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원장 서돈각)에서는 오는 22일(수)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동국대 역경원장인 월운스님을 초청하여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02)703-0108

공 고

불기 2539년도

본사주지·교계중진스님 연수회 개최

전종도의 원력과 신심으로 종단개혁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되고, 또 그 숭고한 호법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교육원이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단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본사주지·교계중진스님 연수회를 개최하여 한국불교 현안문제와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 방법을 모색코자 다음과 같이 연수회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연수회 일정 : 불기 2539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나. 연수회 장소 : 제 8교구 본사 직지사
 다. 참 석 대 상 : ① 각 교구본사 전·현직 주지 스님
 ② 각 불교언론사 이사 스님
 ③ 각 종립학교 이사 스님
 ④ 종단 법인 단체 이사 스님

참조 : 2월 20일 오후 1시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2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원장 원산

공 고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회원 대의원 및 포교사·법사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음 ■

대의원총회

1. 일시 : 1995년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청량리 미주부페 장미실 (진주예식장 3층)
3. 안건 : 94년도 사업결산 및 95년도 사업계획 수립 기타 현안

포교사·법사회 총회

1. 일시 : 1995년 2월 26일 (일요일) 오전 12시
2. 장소 : 청량리 미주부페 장미실 (진주예식장 3층)
3. 안건 : 94년도 사업결산 및 95년도 사업계획 수립 회칙개정 임원선출

*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시는 대의원 및 포교사·법사회 회원께서는 필히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여 1995년 2월 24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2월 7일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회원 이사장 한정섭
 포교사·법사회 총회장 노정우

(130-01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1동 56-16 / 전화 (02)964-8044, 8085 / 팩스. 965-3143